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5월 14일(수) 제 3093호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사진 上) 같은 날 전북대학교 사거리에서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대선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 下)
<사진=전북타임스>

전북지역 단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잇따라

전북 한국노총, 총력 지원
14일 전북수퍼협동조합 등
이 후보 지지 동참 선언

D-20 6.3 대선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3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2면>

또 14일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안근용)와 전북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춘관)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선언에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전북조국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과 함께 본격적인 이재명 후보 지지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에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5만 노동자들의 모든 조직력 역량을 결집해 승리 향한 총력지원을 다짐했다.

기자회견 장에는 박병철 전주지부 의장, 전세성 익산지부 의장, 최한식 완주지부 의장, 이권로 정읍지부 의장 등 전북본부 소속 산업별 대표자 및 간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부터 노동의 고단함을 온몸으로 겪으며 성장한 인물로 누구보다도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그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강한 실천력은 복합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적임자"라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켜 온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고,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권기봉 의장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차별받지 않는 일터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노총의 선택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이 전북자치도의회 앞 현관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오전 10시 15분 대한주택관리협회 전북도회(회장 안근용)외 20여 명과 곧 이어 전북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춘관)의 이재명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김영태 기자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공약, 2023잼버리 유치 미끼였나?

"공약 미이행, 道 사과 우선"
한국연맹 위탁운영 이행 촉구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2023잼버리 유치를 위해 개최계획서 6대 공약 중 하나로 세계 잼버리 야영지 내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조성해 한국연맹에 위탁·운영하기로 공약했으나 미이행하고 있는 것은 잼버리 유치만을 위해서 공약을 미끼로 던진 게 아닌지 전북자치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논란,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 의원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를 둘러싼 운영 방안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전북자치도와 전북도교육청 관계자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수진 의원, 이성호 전북도 자치교육협력국장, 채선영 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4년 4월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세계스카우트센터 관련 약속 미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의 세계연맹분석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며, "개최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한 만큼 약속 미이행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도는 "이행 의무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에만 의지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기는 것일 뿐,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국연맹으로의 위탁·운영 공약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논란 해결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도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협상테이블에 나올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도의원

이수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이행보증 약속에 대한 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해소된 이후에야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활용 자체를 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보면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북교육청으로의 재산이관 검토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절차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의 활용은 센터를 둘러싼 전북도청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간의 논란이 해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만큼, 전북도가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선명한 관계 정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무주, 관광으로 인구감소 마을 살린다

한관公과 '배터뫼' 사업 협약
관광창업·유치로 생활인구↑

무주군이 지난 13일 한국관광공사와 '2025 BETTER뫼 인구감소지역 관광 인구 충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26. 12. 31.)은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BETTER뫼(이하 배터리)'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성사된 것으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황인홍 무주군수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벤처 발굴·육성, △선정기업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한 전문 보육 기관 운영 및 사업화 지원('25년)에 나선다.

또한 무주군은 △선발된 관광 벤처의 실증 및 경영 지속에 필요한 행정적 인허가 지원, △선정기업 중 다음 해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을 위한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1억 원 상당, '26년)에 힘쓴다.

무주군에서는 △'자연환경과 마을 자원을 기반으로 한 로컬 아웃도어', △'책과 독서 중심의 여행콘텐츠',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케이션', △'액티비티와 관광명소를 결합한 액티비티 투어 상품', △'로컬 경험 야간 여행상품 나이트 살롱 in 무주' 등의 지역 관광 상품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로컬업체에서도 사계절 웰니스 체류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여행, 관광객들에게 사진으로 기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한국동서발전과 양수발전소 유치 총력

수몰가구 '0' 입지 최적
주민공감·경제 '두 마리 토끼'

진안군은 13일 울산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본사를 방문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지자체 간 양수발전소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진안군이 추진 중인 유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발전사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지난 2023년부터 양수발전소 유치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양수발전소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준비 중인 지자체는 진안군을 비롯해 경남 5개소, 대구, 경기, 경북, 전남 등 9개 지역으로 파악돼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안군은 △수몰 가구가 없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교우위를 갖췄으며 △지형적·환경적으로도 국내에서 찾기 힘든 최적의 입지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지역 주민의 높은 찬성률과 적극적인 협조를 확보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첫 여론조사 이재명 49.5% 김문수 38.2%

(대선 후보 등록 후)

이재명-김문수 11.3% 격차
이준석 5.7% 한자릿수
민주당 중심 정권교체 51.1%
반드시 투표 77.5% 응답

6.3 대선 후보 등록 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11.3%포인트 앞서는 등 독주 체제를 이어간 것으로 나왔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9.5%로 1위를 독주했고, 다음은 김문수 후보가 38.2%로 나왔다.

다음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7%, 기타 후보 1.5%, 지지후보 없음 3.1%, 잘 모르겠다 1.9%로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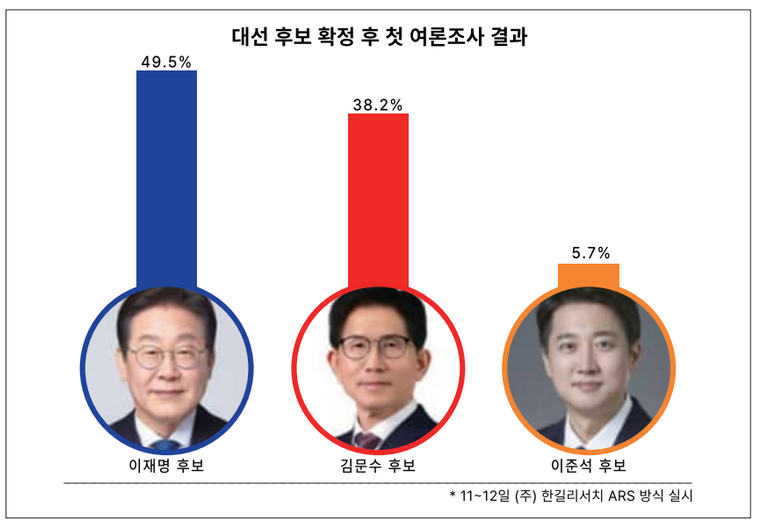
이번 대선에 대해서 '민주당 중심 정권교체' 응답이 51.1%로 '국민의힘 중심 정권 유지'(38.3%)보다 12.8% 포인트 높았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격차와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77.5%였으며,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16.0%로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층이 90%를 크게 넘어섰다.

투표를 안할 것 같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2.5%, 국민의힘이 36.8%, 개혁신당 3.9%, 조국혁신당 2.2%, 기타정당 2.6%, 진보당 1.0%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였다.

보다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및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묵 기자

김제시-김제향교, 유산 활용사업 시작

지역 유산 가치 재조명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김제시와 김제향교는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이다.

지역에 잠자고 있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문화 콘텐츠로 재창조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김제시는 국가유산청 공모에서 202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향교·서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김제향교에서 통하라' 주제로 7월까지 김제향교를 중심으로 국가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총 13회 진행한다.

김제향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동에 위치하고 있다.

태종 4년(1404년)에 창건했으나 선조 30년(1597년) 정유재란의 병화로 소실된 후 인조 13년(1635년) 현재의 위치에 대성전을 비롯 동무(東)와 서무(西)를 중건한 뒤 공자를 중앙으로 하고, 좌우에는 4성과 4현을 배향하고 동서 양무에는 우리나라 18현을 배향하고 있다.

김제향교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유형 국가유산으로 지정돼있는 대성전과 동무와 서무, 명륜당과 동재와 서재, 2층 누각 만화루가 위치하고 있다.

김제향교에서 진행하는 이번 2025 향교·서원 활용사업의 첫 프로그램인 '우리가 김제향교 유생이다'는 조선시대 유생들의 삶을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지난 4월 5일 김제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참여해 전통을 배우고 느끼며 체험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오륜을 Z세대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오륜사상을 삶에 적용해보는 'Z세대 알콩달콩 오륜토크' 프로그램과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문과와 무과로 나눠 진행하는 '어사화를 피우다'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프로그램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사단법인 도깨비문화예술기획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도깨비문화예술기획 관계자는 "이번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김제의 깊은 역사와 문화, 국가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 강화

11,520가구 대상
10개 사업·474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생활 안정 및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약 600만 원)에 해당하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만 1,520가구(2만 8,743명)를 대상으로 총 10개 사업에 474억 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먼저,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기존보다 2만 원 인상된다.

한부모는 월 23만 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 원(2세 미만은 월 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학용품비는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포함돼, 연 93,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60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도내 8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이 기존 한부모뿐 아니라 위기임산부와 조손가족까지 포함된다.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9호의 주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 종합안내서'를 시군에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사업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는 "이번 지원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안호영 위원, 기후·에너지·교육 정책협약 체결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지속가능 전환 정책 연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전동수) △국가기후적응포럼 (대표 박재현)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송홍권)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에너지·교육 분야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약속" 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기술 변화, 교육 혁신의 현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각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등과 함께 '노동존중사회위원회' 주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존중사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산하 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과의 정책연대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김영묵 기자

전북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폭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시군보건소 및 도내 21개 응급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를 실시간 파악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고열·피로감·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방치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조기 인지와 예방이 필수적이다.

노창환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른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낮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수칙을 잘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해상유통운동본부, 1일 2회 해수유통 불만

새만금委 발표에 반박
"수질개선 해결 못한다"

새만금 상시 해상유통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2차 새만금위원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새만금위원회의 한시적인 해수유통에 대해 수질개선과 한경오염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현 새만금위원회의 1일 2회 해수유통에 대한 불만을 토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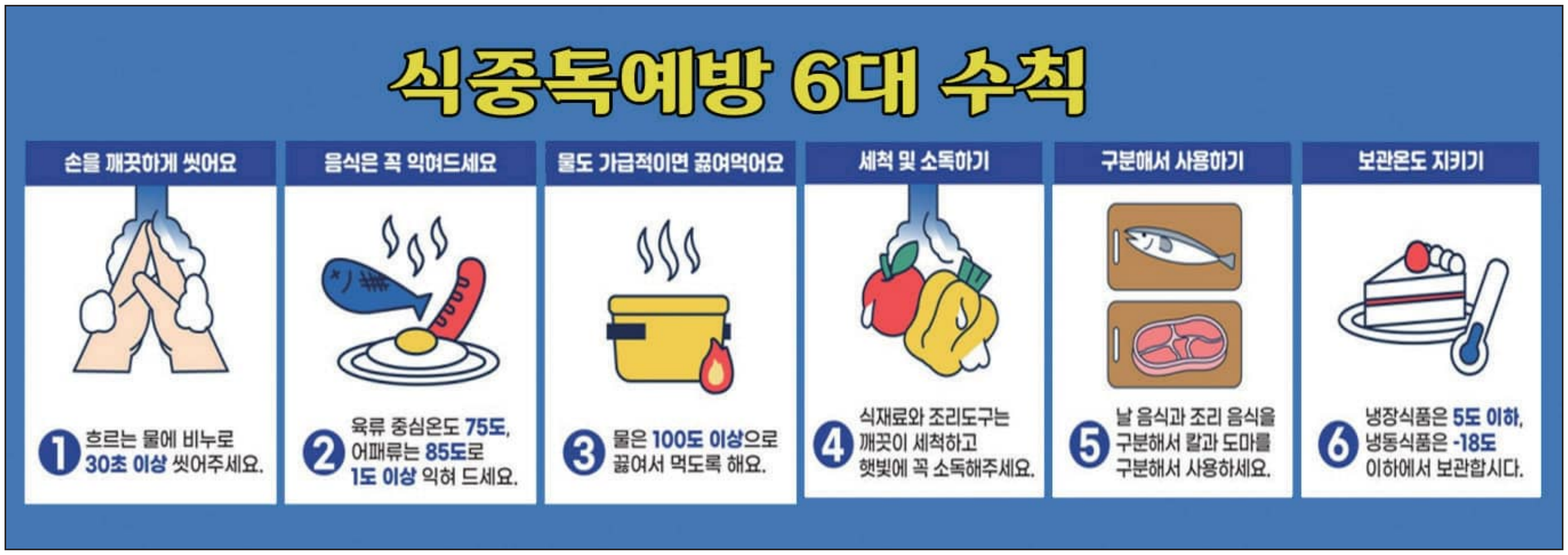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새만금위원회의 -1.5m 수위에 관해 새만금위원회에 "관리수위 변경하자" 요구했으며 이에 새만금위원회는 "변경하지 않지만 해법을 찾겠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해법에 대한 답변이 나오질 안아 속만 탄다"고 밝혔다.

이에 운동본부는 새만금위원회에 "-1.5m 수위를 고정해 놓고 현행 해수유통을 하다 보면 해수유통이 적어 3~4m 해수 아래 용전산수량이 낮아 생물이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은 물을 바다에 버리는 실정이다"고 개탄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 이후 수질개선 위해 사용된 돈은 4초 5천 억 원에 이른다. 앞으로 새만금 관련 수질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일지 한심스럽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상시해수유통본부 사무국장 유기만은 "현재 결정한 제32회 해수유통 방법으로는 수질 개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해양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시민 참여형 정원도시 실현 속도

초록정원사 양성·정원 산책
정원 명소화·공공정원 조성
시민 재능기부 참여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시민과 함께 도시 곳곳에 정원을 가꾸는 정원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정원도시 구축을 위한 4대 핵심사업으로 △초록정원사 양성 △월드컵광장 정원 명소화 △한옥마을 정원산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현재 상반기 초록정원사 기본과정(33명)과 역량강화과정(3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더숲과 협력해 하반기 교육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식물 관리와 정원 설계, 현장실습 등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며, 정원문화 확산을 이끌 정원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45명의 초록정원사가 배출됐으며, 이 중 일부는 정원작가와 정원해설사, 정원관리 인력 등으로 활동하며 정원문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했다.

특히 최근 열린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 정원해설사와 함께하는 정원 투어와 생태정원 장인인 김봉찬 작가와 함께 걸으며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등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동시에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에 초록정원사와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혼불정원 △달빛정원 △윤슬정원 등 6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4개 정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한옥마을 정원산책'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문화·역사·영화·야경 등 주제별 5개 코스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에는 정원해설사가 동행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가로정원과 마을정원, 쌈지정원 등 연중 관리가 필요한 95개 정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 주도의 공동체 기반 정원관리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 생활권 내에서 꽃과 나무를 함께 가꾸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이 직접 정원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시민과 함께 도시 곳곳에 정원을 가꾸는 정원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전주시>

이를 위해 정원사 활동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과 기존에 양성한 '초록정원사'를 중심으로 각 동별 '마을정원공동체'를 구성하는 한편, 마을공동체와 초록정원사를 연계해 실질적인 정원관리 주체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이달 중 초록정원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동별 '마을정원공동체'를 조직하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이웃과 함께 가꾸는 생활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정원도시 전주 실현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보건소, 국가예방접종 '우수'

미접종자 관리 등 건강 보호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전북자치도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13일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기념해 예방접종사업 및 감염병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적기 접종을 위한 정보 제공 △미접종자 관리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위탁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주시보건소는 지난해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예방접종률 88.06%,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 68.56% 등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며 감염병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더불어 자체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80세 이상 일반 시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의회, 집행부 세입·세출 개선 필요 '지적'

결산검사위원회 결과
함께라면 등은 우수 평가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13일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전주시의원과 전직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회의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박혜숙)가 추진한 이번 검사 결과 전주시의 2024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보다 줄었고, 특히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33.56%에 그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2,900만원으로 전년(7억4,200만원)보다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12%로 전년(85.71%)보다 상승했지만, 항목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나 징수 주체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3,086억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로 과다한 수준이고, 이같은 과다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결산검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 주관 2024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 편익시설 개·보수 지원(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1593전주별시 개최(한옥마을사업소), 학교 과일간식 지원(농식품산업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전주시>

박혜숙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에 전주시의회 박혜숙(문화경제위원회, 송천1동) 의원을 비롯해 김동헌(행정위원회, 삼천1·2·3, 효자1동) 의원, 송승용 전 도의원, 봉삼종 세무사, 이철희 공인회계사, 전종표, 최춘희 전 전주시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응

15일부터 풍수해 대책기간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오는 15일부터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을 맞아 자연재난 종합대응에 나선다.

전주시는 13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윤동욱 부시장 주재로 21개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을 앞두고,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난안전과의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대응계획과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전주시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상황 발생 시 재난대응 비상근무체계 즉각 가동 △재해위험지역 사전 점검 및 정비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폭염 대응을 위해 △도로 살수차 운영 확대 △그늘막, 버스승강장 내 에어커튼 등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부서 간 협업 및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윤동욱 부시장은 "최근 자연재난은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서는 재난대비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2025년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8명 선정

'전주시민의 날' 행사서 시상

윤희숙 씨

이종근 씨

방화선 씨

이연희 씨

최승해 씨

김성신 씨

이선희 씨

최재훈 씨

전주시는 각계 분야에서 추천된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주시민대상 본 심사위원회를 거쳐 '2025년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8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예의 2025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효행대상 윤희숙 씨(57세, 여) △교육학술대상 이종근 씨(59세, 남) △문화예술대상 방화선 씨(68세, 여) △산업·기술대상 이연희 씨(70세, 남) △사회봉사대상 최승해 씨(60세, 남) △체육대상 김성신 씨(62세, 남) △환경대상 이선희 씨(50세, 여) △복지대상 최재훈 씨(57세, 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효행대상 수상자인 윤희숙 씨는 30년 이상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이미용 봉사를 펼쳐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교육학술대상을 받게 된 이종근 씨는 30여 년 동안 60권이 넘는 인문학 및 한국문화 관련 도서를 발간하며 전문 학술분야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선자장으로서 전주에서 활동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 온 방화선 씨는 문화예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창해에탄올 대표이사로서 감성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진기업문화를 주도해온 이연희 씨는 산업·기술대상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대상에는 삼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으로서 지역사회 연대 활동에 앞장서오며 매주 두부와 콩나물을 후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기부활동을 전개해온 최승해 씨가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전주시태권도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성신 씨가 체육대상 수상자가 됐다.

환경대상 수상자인 이선희 씨는 사단법인 더숲의 사무국장으로, 초록정원관리사와 꿈의정원사 등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주형 정원 일자리 체계를 구축해 전주시 녹지 행정 및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복지대상을 수상하게 된 최재훈 씨는 금암노인복지관 관장을 맡으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복지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왔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민대상 상패와 메달이 수여될 예정으로, 향후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예우를 받게 된다.

한편 전주시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민대상은 우리 지역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며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을 받으시는 모든 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보건소, 해외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 콜센터 통해
국가별 감염병 정보 확인 권고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5·6월 중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에게 감염병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전주시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멕시코, 일본에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찾는 베트남과 중국, 태국 등에서는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인해 감염돼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콜레라도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모기매개 감염병인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등도 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NOW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통해 여행국가별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출국 최소 2주 전까지 홍역,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말라리아 예방약은 여행지에 방문하기 2~7일 전부터 복용해야 한다.

보건소는 또 △해외여행 중 음식을 먹기 전후 반드시 비누로 손 씻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낙타·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등 개인위생 수칙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검역관리지역(대상감염병 15종, 167개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에는 입국 시 Q-CODE를 제출하고, 귀국 후 감염병 잠복기 동안 발열과 발진, 기침, 콧물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전북 1분기 경제, 산업·인구 모두 '빨간불'

제조·금융 줄고 인구도 유출
건설·소매는 소폭 증가세
광공업·고용 동반 하락세

전북특별자치도 광공업·서비스업은 전년동분기대비 1.0%, 금융·보험 등은 전년동분기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 2025년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발표에 따르면, 소매판매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에서는 전년동분기대비 0.2% 판매가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수주 전년동분기대비 58.3%, 소비자물가 전년동분기대비 2.3%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수출의 기타 일반기계류에서 전년동분기대비 4.0%, 고용의 60세이상, 40대에서 전년동분기대비 0.8%p 감소와 하락으로 확인됐다.

인구 순이동에서는 20대(-1,992명), 10대(-396명) 등이 유출되며 1980명 순유출로 집계됐다.

더불어 광주·전남지역 올해 1분기 경제는 건설 분야 중심으로 침체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 '2025년 1분기 호남권 경제 동향 모니터링'에서 전년동기대비 광주는, 제조업 생산이 늘었으나 전남은 감소했다.

'건설 수주·수출·고용' 양 지역 모두 감소로 조사됐다.

1분기 광주 광공업생산지수는 '전기장비·담배·금속가공' 등 전년동기대비 6.0% 증가.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1.8로 부동산 등에선 늘었지만 예술·스포츠에서 줄어 1.7% 감소했다.

소매액 판매액지수는 97.2로 1.8% 소폭 증가세를 나타났지만 '대형마트(-.6.6%), 백화점(-4.6%)' 등은 감소, 전문소매점(3.4%)은 늘었다.

광주 건설수주액은 1386억 원으로 건축공사, 토목공사 수주 88.9% 급감.

수출은 38억 1000달러로 기타 일반기계류(37.6%), 유선통신기기(635.9%) 등은 늘고 '프러세스, 컨트롤러(-15.5%), 승용차(-7.1%), 축전기·전지(-69.1%)' 등은 10.8% 감소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으로 음식, 숙박시설 품목이 오르며 전년동기대비 2.1% 상승. 취업자수는 76만5000명으로 광·제조업에서 상승, 고용률은 59.9%로 40대 상승, 실업자는 2만7700명으로 17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5%로 0.3%p 상승했다.

호남지방통계청 경제동향 결과 전북 광공업·서비스업은 전년동분기대비 1.0%, 금융·보험 등은 전년동분기대비 1.1% 감소했다. <사진=호남지방통계청>

광주 1분기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4945명이 순 유출됐다.

자세한 내용은 호남지방통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두산퓨얼셀과 12일 군산시 두산퓨얼셀 공장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연료전지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한전>

한전-두산퓨얼셀, 신규 연료전지 안전 '맞손'

수소경제 활성화·연료전지 안전관리 강화 협력 구축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두산퓨얼셀과 12일 군산시 두산퓨얼셀 공장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연료전지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양 사가 연료전지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기술·선진기술 국내 정착을 위한 검사 기준을 개발하고, 안전 관리 교육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이후, 연료전지 제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두산 퓨얼셀은 300㎾급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의 국산화에 최초 선공한 업체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료전지 수소 발전량 목표치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원활한 이행과, 제품 검사 시행에 따른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김성주 기술이사, 최병우 전력계통검사처장, 두산퓨얼셀 방원조 상무, 이승준 상무 등 12명이 함께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김성주 기술이사는 "꾸준한 교류를 통해 양 사가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여름철 축산농가 재해 '선제 대응'

축산시설·전기 174농가 점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계획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전북특별자치도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 및 이상기온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축산재해 예방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재해에 취약한 축산농가 174개소를 대상으로 축사, 전기설비, 배수로, 냉방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기상 전망과 재해유형별 사전 조치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여름철에는 재해 유형별 축사 및 가축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재난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보험료는 정부 50%, 도와 시군이 30~35%를 지원하며, 농가는 15~20%만 부담하면 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농·축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특보가 발효되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계획 수립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64억 원을 투입해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가축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축사 지붕 스프링클러,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 쿨링패드(냉각판) 등 폭염 대응시설·장비 보급을 확대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축산산업국장은"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예방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축산농가에서도 '내 가축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재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기상특보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신협중앙회는 지난 12일 '신협 선구자 추모식'을 열었다.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창립 65주년기념 선구자 뜻 기리다

가브리엘라 수녀·장대익 신부
신협운동 개척자 추모식 열어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창립 65주년을 맞아 12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신협 선구자 추모식'을 개최하고 한국 신협운동의 개척자인 고(故)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고(故) 장대익 신부를 추모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김윤식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신협 임직원 220명이 참석했다.

신협 임직원은 이자리에서 혼란스러운 금융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신협 강자로 도약할 수 있었던 '신협운동' 정신을 되새겼으며, 선구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선구자의 날'은 1960년 5월 1일 부산에서 27명의 조합원이 출자금 3,400환(약 10만 원)으로 설립한 '성가신협'의 창립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된 날로, 매년 5월 신협 창립월에 맞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신협운동은 1926년 선교활동을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고(故)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1960년 5월 부산에 '성가신협'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브리엘라 수녀는 한국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과 구호가 아닌 자립과 자활이라는 신념으로 신협운동을 전파했고, 한국신협연합회(현 신협중앙회) 설립을 주도했다. 그녀는 1982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았으며, 1993년 93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고(故) 장대익 신부는 한국인 최초로 신협운동을 전개한 인물로, 1960년 6월 국내 두 번째 신협인 서울 '가톨릭중앙신협'을 설립했다. 그는 조합원 간 사랑과 결속을 신협의 핵심 가치로 삼고, 조합원 중심의 운영 철학을 강조했으며, 고리사채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장신부는 2008년 8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노란우산 소상공인 장려금 두 배로

7월부터 월 2만원 확대
생계위험 대비 공적제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을 오는 7월부터 기존 월 1만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매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금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령, 퇴임 등의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적 제도다.

가입자는 적립한 공제금을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한 분기별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된다. 특히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돼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납부 부금 내에서 일반대출이나 무이자대출(의료·재해·회생·파산 등)도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부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 확대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응원과 힘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란우산 가입은 콜센터나 공제 상담사의 현장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발생 긴급 방제·확산·차단 '비상'

올해 첫 발생에 '주의' 격상
관계기관 참여 긴급대책회의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2일 충북 충주 소재 사과 과수원 1곳 0.6헥타르(ha)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과수화상병이란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시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충북농업기술원, 충주농업기술센터 등은,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를 진행하며 15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51개 농가, 29ha)을 예방 관찰(예찰)해 과수화상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3일 14시 서효원 차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도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긴급대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신규 지역 발생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와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정기 예찰 기간 중 발견됐다. 충주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간이 검사한 결과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시료를 정밀 검사해 같은 날 18시 과수화상병으로 최종 확진했다. 해당 과수원은 지침에 따라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162개 농가, 86.9헥타르(ha)로 2023년 대비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2%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 또한 과수화상병이 역대 최대로 발생한 2020년에도 전체 재배면적 대비 0.97% 수준으로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수급 불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농진청은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문자(알림톡)를 발송해 매주 화요일로 지정된 '화상병 예찰의 날' 참여를 유도하고, 과수화상병 증상 조기 발견을 위한 시각적 자료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했지만, 올해부터도 농업기술원을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은 12일 충북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사진=농진청>

LX공간정보연구원, 임·직원 소통 윤리경영 강화

LX공간정보연구원(원장 곽희도)이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확립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예방 교육에 나섰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13일 1층 대강당에서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대면교육'을 개최하고 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소통했다.

곽희도 원장의 윤리경영 메시지 전달로 시작한 대면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최유정 전북양성평등센터 전문위원), 갑질 개선·청렴 교육(이민곤 청렴강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약 6시간 가량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이주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이 함께 참여해 연구원 직원들에게 변화를 주제로 직접 강의를 실시했다.

/김영태 기자

국내외 그림책 작가 전주에 모여 콘퍼런스 연다

5월 30일 완산도서관서 '그림책 속 마법' 주제로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열리는 전주에서 국내외 그림책 작가와 활동가, 전문가, 독자가 함께하는 콘퍼런스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30일 완산도서관 열린무대에서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의 일환으로 '그림책 속 마법(Magic in the Picturebook)'을 주제로 한 '그림책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오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완산도서관 일원에서 열리며, 전시는 6월 29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올해 도서전에서는 예술성과 공공성을 아우르는 그림책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하는 자리인 콘퍼런스도 마련됐다.

전주시는 오는 30일 완산도서관 열린무대에서 '그림책 속 마법(Magic in the Picturebook)'을 주제로 한 '그림책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주시>

콘퍼런스는 1부 활동가 세션과 2부 작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1부에서는 △순천 그림책 해설사(현부연, 심명선, 윤해경, 이승연) △원주시그림책센터(박설희, 김매화, 최성미) △전주 도슨트팀(전선영, 박현)이 참여해 지역 기반 그림책 활동과 도시 브랜딩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펼쳐지는 2부에서는 올해 도서전의 원화 전시 참여 작가인 사라 룬드베리와 백희나, 키티 크라우더가 작가의 작업 세계와 '그림책 속 마법'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게 된다. 또, 종합토론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그림책 콘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공식 누리집(jipf.jeonju.go.kr)을 참고하면 된다.

/정재근 기자

서거석 교육감 "선생님 곁 굳건히 지킬터"

스승의 날 감사 서한문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선생님의 곁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13일 스승의 날 기념 서한문을 통해 "학생들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여주시고, 조금 느리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 학생들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한결같이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 교육감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교육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교권은 흔들리고, 선생님의 마음도 서서히 지쳐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선생님을 지켜드리는 일,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일, 교육청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선생님께서 학생의 곁을 지켜주듯 교육청도 선생님의 곁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될 때의 초심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교육감은 "오늘의 전북교육은 온전히 선생님 덕분이며, 내일의 전북교육도 선생님이 주역"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서 교육감, 공약 목표달성·이행완료 평가 '최고 등급' 획득

전체 175건 중 71건 완료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 목표달성 및 이행완료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거석 교육감의 민선 4기 공약 이행률은 공약 목표 121.9% 달성, 전체 공약 175건 중 71건 완료로 나타났다.

특히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단 한 건도 없는 '미이행 제로' 상태를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공약을 철저히 관리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온 행정의 성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성과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단 4곳만이 받은 '목표달성·이행완료' 2개 분야 모두 S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목표달성 분야는 2018년, 이행완료 분야는 2017년 이후 오랜만에 'SA'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집행률도 76.3%로 전국 2위에 올라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행정 역량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2024년 이후 공약관리 규칙 신설, 외부 공약관리위원 30명 위촉, 공약 누리집 개편 등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 교육감은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도민과의 신뢰"라며 "앞으로도 공약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학생의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유의민 여행작가 초청 강연

전주시는 13일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에서 여행전문기자이자 작가로 활동중인 유의민 여행작가를 초청해 '지금 바로 세계여행'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을 맡은 유의민 작가는 현재 여행전문잡지 '트래비'의 객원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동아를 포함한 다수의 매체에 여행 관련 기사를 기고하고 팟캐스트 여행라디오에도 출연해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앗쌀람 알라이쿰 이집트 △여행하려고 출근합니다 등이 있다.

유 작가는 '나만의 루트로 떠나는 이집트 여행'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실제 이집트를 자유 여행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또, △나만의 이집트 여행루트 △이집트 여행 준비를 위한 환전, 옷차림 △피라미드 뷰 숙소 고르기 등 이집트 여행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오는 7월과 9월에는 각각 일본여행과 몽골여행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군산대, '전공·진로 가이던스센터' 본격 운영

맞춤형 전공·진로 설계 지원

국립군산대학에서 올해부터 '전공·진로 가이던스센터'(이후 가이던스센터)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전공·진로 설계를 본격 지원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국립군산대의 가이던스센터는 전국 국립대 최초로 시행한 '전과프리(Free) 3무(無)'제도와 모듈형 융복합 학위과정(MCD)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학생들의 폭넓은 전공 선택 지원과 더불어 진로 역량 강화 및 학업 지속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이던스센터란 전담 인력이 상주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라도 전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진로 탐색부터 전공 선택, 융복합 학습 설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전공진로 설계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교수, 조교, 선배 멘토, 산업계 전문가, 미들맨(Middle Man) 등으로 구성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cademic Advisor)'를 학생들과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공 선택 또는 전과 희망 학생에게는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산업계 전문가와의 1:1 전문 상담을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진로 설계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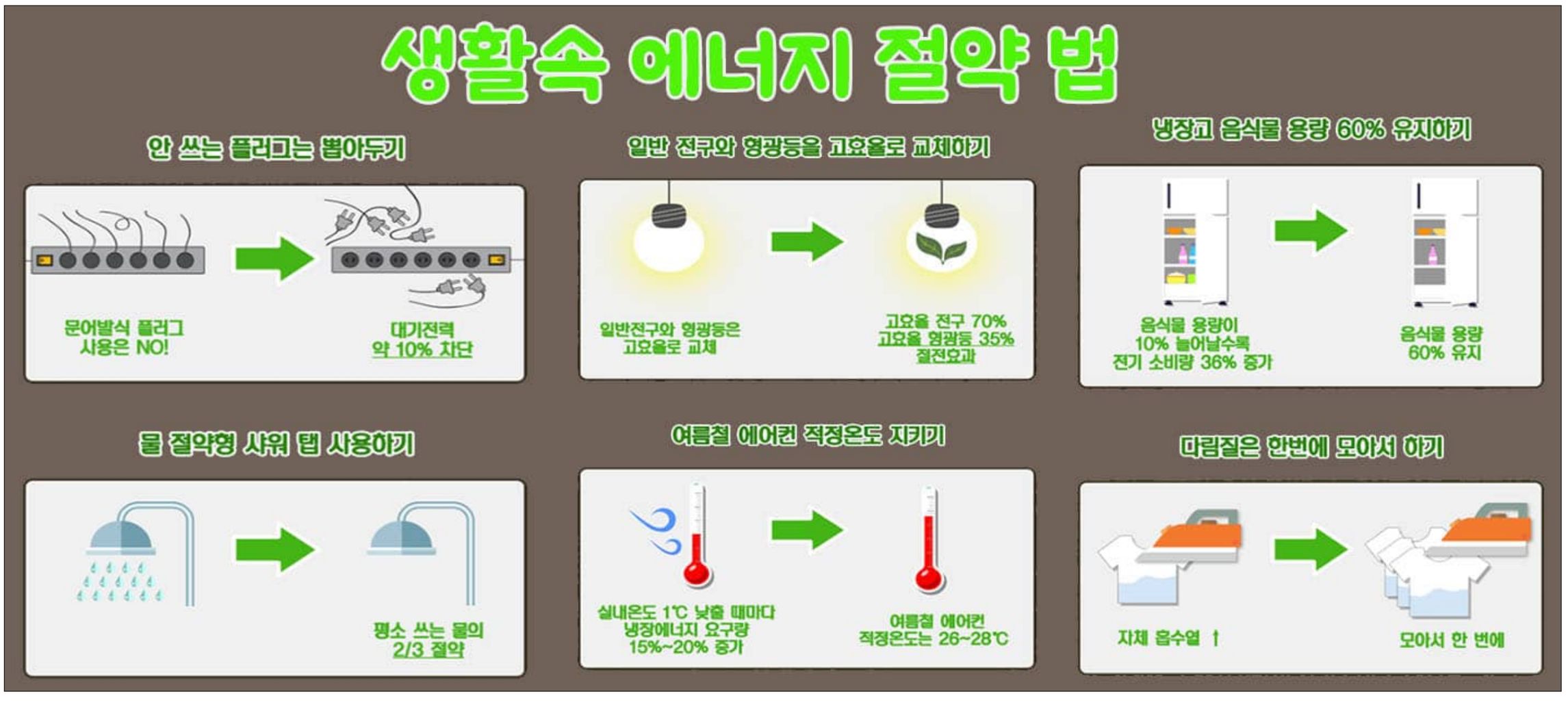
국립군산대 오정근 글로컬대학추진단장은 "학생들이 쉽게 무제한 전과와 융복합 모듈형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전공자율선택제의 강점을 살린 국립군산대만의 방식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총 청년 교사 목소리, 교육 미래 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12일 전북교총 회의실에서 '2025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을 비롯해 송민주 청년위원장(영전초 교사)과 20여명의 청년위원들이 참석했다.

올해 2030 청년위원회는 △청년 교사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 및 소통 간담회 운영 △타 시도 청년위원회와의 교류 연수 추진 △서이초 2주기 추모제 참여 및 교권 회복 캠페인 전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연수 실시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군산시, 2025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총력

군산시가 오는 6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30일까지 '2025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어가를 모집했고, 그 결과 고용 희망 어가 58개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155명을 접수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해면양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시는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2023년 58명, 2024년 130명으로 인원을 배정받아왔다. 인원수 역시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재입국 희망자도 '23년도 6명, '24년도 25명, '25년도 73명으로 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어촌인력 숙련도 향상 및 어촌 고용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계절근로자의 어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어업 경력자 등 어촌적합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계절근로자 근무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근무환경 적응을 위해 시는 오는 30일까지 고용 어가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숙소 점검 및 임금·근로시간·보험 가입·인권침해 예방 등 고용주 사전교육에 나서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운영

군산시가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인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소에 나서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렵거나 납세 불편을 겪는 주민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상담은 모두 시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진행된다.

상담은 복잡한 국세 및 지방세 문제부터 기본적인 세무 지식까지 다양한 분야이며, 무료로 가능하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군산시 누리집, 군산시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를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시간·장소를 정해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칠보산 하늘, 패러글라이딩 열정으로 수놓다

정읍 칠보산 활공장이 전국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5회 정읍내장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가 1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패러글라이딩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열띤 경쟁 끝에 단체전에서는 전주시패러글라이딩협회가 1위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전에서는 연습조종사부 이인석(패러투어), 조종사부 문병국(전남 곡성), 여성조종사부 임채희(패러투어), 최고 고도부 라준배(패러투어) 선수가 각각 부문별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새들허브숲' 모습 드러낸다

총 56억 투입 5월 중 완료
도심 속 힐링 공간 탄생

군산시 '새들허브숲' 전경 <사진=군산시>

군산시가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힐링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새들허브숲' 조성사업을 5월 중 완료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연 친화적 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이번 사업은 산림청의 기후 대응 기금 지원을 받아 총 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군산시 수송동 708-2번지 일원 새들공원 내 공원 미 조성지 59,837㎡에 산책로, 잔디광장, 억새원, 다양한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을 진행했으며,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다른 공원들보다 식재 비율을 높여 칠엽수, 편백 나무 등 교목 2,700주와 관목 29,250주가 심어졌다. 따라서 시는 '새들허브숲'이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식재된 수종들은 산림청이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흡수 및 흡착 능력이 우수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뛰어난 수목들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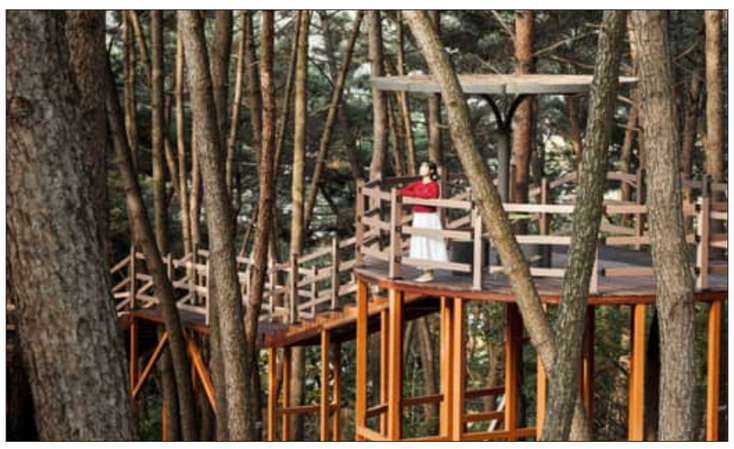
시는 하반기부터 사업 시설 비율 제한으로 설치하지 못한 벤치나 모정과 같은 편익 시설을 점진적으로 보강하며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새들허브숲을 도시 바람길숲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군산'을 대표하는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함라산 힐링 산책 데크길…6월 준공

1.5㎞ 생태숲길 순차적 조성



금강 물길과 한반도 최북단 야생 녹차밭이 만나는 곳, 익산 '함라산'이 자연과 쉼을 품은 시민의 힐링 산책길로 거듭난다.

익산시는 '함라산 데크길 조성사업 2단계'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완료된 1단계 사업의 연장선으로, 시민과 방문객이 더욱 가까이에서 함라산의 생태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데크길과 전망대를 중심으로 정비된다.

2단계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564m의 데크형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 최북단 야생차나무를 더 가까이 체험하고 금강의 시원한 물줄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이번 2단계를 포함해 총 20억 원을 투입해 약 1.5㎞에 이르는 전체 데크길 구간을 세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로 2026년에 추진할 3단계 사업을 통해 산책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전 구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탄탄한 숲길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억 원 규모의 산림복지진흥원 주관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 공모에 나선다. 함라산 자연휴양림에서 국립익산치유의숲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연결해,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열린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사업 추진

위생관리 모범 급식소 선정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

정읍시보건소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소는 '2025년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사업'을 통해 모범적인 위생 관리를 실천하는 급식소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6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집단급식소로 정식 등록된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병원 등 약 130개소이며 참여를 원하는 급식소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신청한 급식소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 집단급식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우수 집단급식소' 현판이 부착되며, 식중독 예방·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업소당 최대 50만원 상당)이 부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지정 후에도 3년간 지속적인 재평가를 실시해 우수 집단급식소의 안전 관리 수준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미래 교육 모델 교육발전특구 사업 시범 추진

지역 인재 육성·교육 격차 해소

군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며, 지역의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시는 작년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더딤에서 으뜸까지, 혁신배움의 사(4)다리, 과학이음 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향하여 '돌봄에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가족 중심의 정주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교육을 매개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과학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군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협력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특히 돌봄, 배움, 진로, 통합의 네 가지 사다리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든든한 돌봄'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중 하나로 방학 중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024년 겨울방학 동안 초등 돌봄교실 이용 아동 900여 명에게 총 2만7천여 개의 건강 도시락을 무상 제공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는 '쟁쟁한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문화융합 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을 주요 추진사업 중 하나로 선택했다.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골자로, 각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촘촘한 취업이음'을 위해 산업단지와 연계한 현장 실습, 기업 멘토링 등을 통해 진로 체험을 제공하고, 이차전지 산업 관련 '기업이음 과학캠프'도 운영한다. 아울러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과 장애인을 위한 '우리 마을 인턴십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김현석 복지교육국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들은 군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군산형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인재가 성장하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지역 교육 혁신 '도전'

이리여고, 자율형 공립고 2.0

익산시가 이리여자고등학교, 익산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에 나선다.

익산시는 13일 이리여자고등학교에서 익산교육지원청, 이리여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도전과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의 역량을 높여 공교육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5년간 사업비 10억 원 지원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과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교과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진로 체험 지원 △미래 유망산업 관련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이로움 고교역량강화 등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지역 자원이 더해져 청소년의 학력 신장과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신청사, 전국에서 벤치마킹 잇따라

강원특자치도 인제군수 방문

익산시 신청사가 경제성과 실용성을 갖춘 우수 사례로 주목받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13일 신청사를 방문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인제군 방문은 효율적인 청사 건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익산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환담을 시작으로 익산 신청사 건립 과정과 주요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신청사 내부를 직접 견학하며, 청사 건립을 비롯한 주요 행정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익산 신청사는 이번 인제군 방문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상주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라남도 순천시·장흥군, 경기도 여주시 등 전국 각지에서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액션그룹 심화교육으로 농촌 혁신 역량 UP

정읍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주민 주도형 혁신가 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읍시와 정읍시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지난 12일, 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3기 아카데미 심화교육' 과정을 개강하고 본격적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지역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액션그룹(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농촌 혁신 전략 수립 능력과 프로젝트 실행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6월 초까지 총 7회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화과정은 기존의 기초교육과 사업을 성실히 이수한 액션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향후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화·고도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적인 기회가 부여돼 지역자원에 기반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특강과 함께 그룹별 실습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상호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주민이 주도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정부양곡 안전 관리 '빈틈없다'

재고조사·실태점검 돌입

정읍시가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자산인 정부관리양곡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도정공장을 대상으로 재고조사와 안전보관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재고조사는 정읍시 보유 양곡의 수량과 보관 상태, 품질 변질 여부, 창고 시설 관리 등을 점검해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청·읍면동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 조사반 20개를 구성해 관내 81개소의 보관창고와 도정공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러한 점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하절기에는 양곡 해충 발생 등 보관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훈증약제를 각 보관창고에 미리 공급해 해충 예방과 품질관리에도 사전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각 창고별 필요한 훈증약제 총 630캔(1캔=100정)을 공급하고, 올바른 약제 사용을 위한 현장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군정운영 '긍정적 평가'

군민 만족도 여론 조사
4명 중 3명 만족
참신한 정책·사업 호평

고창군이 민선8기 출범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한 군정에 대해 군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군정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군민 4명 중 3명이 만족감을 드러내며 72.1점(긍정 65.3%, 보통 23.3%, 부정 11.4%)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전년도 같은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고창군민들은 여전히 '만족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렸으며,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소통과 홍보(41.5%), 새롭고 과감한 시도, 참신한 정책과 사업(34.2%) 등을 꼽았다.

고창군 2025년 슬로건인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만족 68.3%, 보통 22.4%, 불만족 9.3%로 나타나, 평점 74.0점으로 슬로건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고창군의 주요 사업관련, '고창수박 명성 공고화,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정(77.7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삼성전자 등 기업유치(76.6점)', '전국최초,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 및 계절근로자 입국(7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정이 군민에게 체감되는지, 군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특히 현장에서 군민들과 만나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고창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13%)와 무선전화(87%)를 이용한 전화조사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7.2%,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이며, 표본추출은 2025년 3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라 할당표본 추출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매주 월요일 청렴 메시지 전한다

청렴 공직 문화 확산
'청렴 24.7' 방송 청취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청렴 메시지를 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월요일 아침, 전 청원을 대상으로 청렴 라디오 방송 '청렴 24.7'을 송출해 청렴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 24.7'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5분부터 약 5분간 본청을 비롯해 각 사업소와 읍면동 등 전 부서를 대상 송출되며,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방송명 '청렴 24.7'은 '24시간 7일'을 뜻하는 '24/7'에서 착안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청렴을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방송은 지난 12일 정성주 시장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담긴 청렴 명언을 전하며 시작됐으며, 이후 방송은 선현들의 청렴 일화, 현대의 청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오는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청렴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렴 24.7'은 월요일 아침을 청렴으로 시작하는 작지만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 작은 노력이 시민과 공직자의 마음에 오래 남아, 신뢰받는 김제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독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 행사
미래 스스로 결정해주길"

심덕섭 고창군수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책임 있는 참여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자"며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심 군수는 13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투표에 참여하고, 군민들 역시 소중한 한 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주길 당부했다.

고창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방위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13일에는 군청사 외벽에 '투표 꼭 참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 일자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책임 있는 참여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자"며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사진=고창군>

심덕섭 고창군수는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지역을 위한 책임이다. 한 분의 참여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며, 고창군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인천부안군민회, 부안군에 1711만원 고향사랑기부

이명순 인천부안군민회장
비롯 회원들 기부금 전달

부안군은 지난 2일 부안 K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부안마실축제 환영리셉션 현장에서 인천 지역 향우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뜻깊은 기부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리셉션에서는 이명순 인천부안군민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총 1711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부안군에 전달해 축제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명순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500만원을 기부했고 김정암 전 회장 또한 500만원, 김정열 수석부회장과 이정희 한림병원 이사장이 각각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명순 회장은 "향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고향에 대한 애정이 더욱 뜻깊게 전달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부에서는 '365 릴레이 기부' 참여자 14명이 눈길을 끌었다.

365 릴레이기부는 하루 1000원씩 1년간 총 365일 동안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 문화의 일상화를 이끌기 위해 인천부안군민회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이다.

매일 작지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기부는 개인별 36만 5000원, 총 511만원에 달하며 고향을 향한 지속 가능한 애정 표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명순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이뤄진 인천향우회의 참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고향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따뜻한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우들의 진심 어린 기부가 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성냥이 남긴 김제의 흔적' 기획전

1980~90 광고용 성냥 128점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전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5월 〈이달의 소장품〉 전시'로 '불로 피운 광고, 성냥이 남긴 김제의 흔적'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13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상에서 사용됐던 광고용 성냥 128점을 통해, 성냥이 단순한 발화 도구를 넘어 광고 매체이자 생활 문화의 매개체로 기능했던 다중적 면모를 조명한다.

성냥은 19세기 후반, 일본을 통해 국내에 전래되고, 1886년 인천 제물포에 국내 최초의 성냥공장이 설립되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됐다.

성냥의 대중화는 광복 이후에 이뤄졌으며, 20세기 중반까지 부엌의 취사, 사랑방의 흡연, 집들이 선물 등 다양한 일상적 용도로 활용되며 필수 생활용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라이터, 가스레인지, 보일러 등의 보급과 더불어 다양한 광고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광고용 성냥은 점차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일부 수집가의 컬렉션 또는 박물관 전시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생활사 유물로 남게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에 공개된 광고용 성냥들은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시대의 문화, 광고, 상업적 흐름이 집약된 귀중한 자료"라며 "특히 김제 지역업체의 흔적이 담긴 성냥 11점은 지역 생활 문화 연구는 물론, 한국 현대 생활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인구 5만지키기 추진단 25명 위촉

인구 유입 시책 발굴 활동

고창군은 13일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구지키기 범군민 운동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고창군의 각계 기관·사회단체 대표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가 직접 추진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고창군 인구 현황 △'고창愛 주소갖기' 추진실적 △고창군의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보고와 함께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은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고창 5만 지키기' 범군민 공감대 확산,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시책 발굴 등 인구 5만 지키기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인구 5만 지키기는 고창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위촉식이 고창군민 모두가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 1,102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130만원씩, 조건불리지역은 80만원씩 총 1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직불금 신청은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어선원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조건불리지역은 위도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소규모 어가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유도명가' 고창 전국대회 메달 6개 쾌거

고창군청 여자 유도부
금 3·은 1·동 1·단체전 동메달

고창군청 소속 유도선수단이 '2025 양구 평화컵 전국유도대회'에서 메달 6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지연 경기지도자가 이끄는 고창군청은 개인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그리고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며 '유도명가'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개인전 -48kg급 라희원 선수는 포항시청 한수연 선수를 만나 꺾기 기술 한판승, -63kg급 서수빈 선수는 포항시청 채정아 선수에게 한팔 업어치기 후 누르기로 한판승, -78kg 이정윤 선수는 안산시청 채윤지 선수에게 발다리 기술 후 누르기로 한판승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57kg급 이재란 선수는 은메달, -78kg급 김아현 선수는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또한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는 동해시청을 상대로 2대2 박빙의 승부를 벌이다 마지막 경기에서 지도패로 동메달을 획득하며 '유도명가' 고창을 다시 한번 알렸다.

이지연 경기지도자는 "힘든 훈련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주는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1회 검정고시 전원 합격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학교 밖 청소년 20명이 2025년 제1회 검정고시에 전원 합격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학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평선학당 ㈜종로아카데미의 전문 강의 지원, 체계적인 학습관리 및 지속적인 격려 덕분이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은 향후 대학 진학, 자격증 취득, 취업 등 각자의 새로운 진로를 향해 나아갈 예정이다.

센터는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1:1 맞춤형 멘토링, 교재 및 교과별 인터넷 강의 제공, 응시 격려 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학습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한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혼자 공부하는 것이 막막했지만, 꿈드림 센터의 지원 덕분에 큰 힘을 얻고 합격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유미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청소년들이 흘린 노력의 결실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교육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17일 석정문학관서 제3회 한국동시축제 개최

부안군문화재단은 제3회 한국동시축제(이하 동시축제)를 오는 17일 부안읍 석정문학관 및 청구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문학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대회, 체험, 공연, 전시 등 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회프로그램으로 △초등부, 청소년부, 성인부 동시 백일장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 △어린이 시인학교 경연대회가 개최돼 동시 문학을 저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형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동심놀이터 △야외 어린이 도서관 △동시인과 예술가가 운영하는 체험부스 등이 동시를 직접 체험하고 가족간의 화합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연프로그램으로는 △동시 작가와 함께하는 동시낭독 동시냠냠 △서커스 및 버블쇼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선호와 미8군 군악대의 동심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동시 백일장은 초등부, 청소년부, 성인부로 나눠 부안군수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상 등 참가자 총 130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동시축제는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동시를 통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정 훈련생 취업 지원 협력체계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9일, 여성회관 직업교육훈련실에서 반려동물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반려동물 관련 업체 대표 4명을 포함한 일자리 협력망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정 훈련생들의 취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반려동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관련 전문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체 대표들은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익산시 개토피아, (유)미래전주반려동물장례식장 아리움, 파머라운지 등 각 대표와 참석자들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생들의 실질적인 지원, 현장실습 기회 확대와 도내 지역 행사 부스 참여기회 제공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보태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군, 도로 개선 예산 집행 촉구

최영일 군수, 세종청사 찾아 안전 개선·접근성 확보 절실 예타 통과 위해 강력 요청

최영일 순창군수가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손꼽혀온 도로 개선 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 행보에 나섰다. <사진=순창군>

최영일 순창군수가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손꼽혀온 도로 개선 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 행보에 나섰다.

최 군수는 지난 12일 직접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 이재우 총사업비관리과장, 김완수 타당성심사과장을 만나 순창군의 도로 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반영의 절박함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번 방문에서 최 군수는 △국도 21호선(인계적성) 2차로 개량사업 △국도 24호선(순창적성) 4차로 확장사업 △국지도 55호선(순창~구림) 확장사업 등 3개 주요 노선에 대해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일일이 설명하며 직접 관련 부처를 설득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의 도로 여건은 단순히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로 선형 불량과 사고 다발 지역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국도 21호선 인계~적성 구간은 급커브와 좁은 도로 폭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이며, 실제로 이 지역은 평균보다 6배 이상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최 군수는 이 구간의 구조 개선 없이는 관광객 안전 확보와 지역 접근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도 24호선 순창~적성 구간 역시 이미 인접 지역은 4차선으로 확장 완료됐으나, 순창 구간만 2차로로 남아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채계산 출렁다리와 용궐산 하늘길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연간 60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불편은 극심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지도 55호선 순창~구림 구간은 강천산, 지리산, 내장산을 연결하는 관광 핵심 루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 협소와 지·정체로 관광 수요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설계는 마무리됐지만 종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최 군수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면서 정부세종청사에 조속한 협의와 예산 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춘향제 동행세일페스타, 지역 상점가 '활력'

소상공인 128개 업체 참여 다양한 업종 소비 유도 일조

남원시가 제95회 춘향제 기간(4.30.~5.6.) 동안 추진한 '동행세일페스타'가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민생 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동행세일페스타에는 총 128개 점포가 참여해, 지난해(40개)에 비해 세 배 이상 참여 규모가 확대되었다. 특히 음식점, 카페뿐만 아니라 의류, 세차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참여 업체들은 남원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할인 제공과 추가 서비스, 친절한 응대를 통해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이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역 상점가에서 즐겁게 소비할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참여 업체에서 소비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교환 부스를 운영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축제 기간 다소 외면받을 수 있는 시내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일조했다.

남원시는 올해의 성과와 보완점을 반영해 내년에는 참여업체와 소비자가 보다 행사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상품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년예술인 최종 선정 창작활동 본격

청년예술활동지원 10팀 선정 총 1800만원 지원금 교부

(재)완주문화재단이 '2025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의 최종 선정자 10명(팀)을 선정해 최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작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완주군>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2025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의 최종 선정자 10명(팀)을 선정해 최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작활동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완주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청년예술인들이 동료로서 서로의 계획을 심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상호심의 방식을 도입해 특히 주목받았다.

이는 완주문화재단이 청년예술인 간 교류와 협업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새롭게 시도한 방식으로, 선정자들 사이에 창작과 성장의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됐다.

올해 선정된 청년예술인 10명(팀)에게는 총 1,800만 원의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완주 곳곳에서 다양한 실험적 창작활동이 펼쳐진다.

/완주=김명곤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국비 확보에 '전방위 행보'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방문 최대치 국비 확보 총력

남원시는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해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 일정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의 핵심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일제출장으로 선제적 대응해왔으며, 지난달 22일부터 3일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별 부처 예산 반영상황을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했다.

이날 최경식 시장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 백평·입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732억원) △ 생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115억원) 등의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해 △ 방현지구 배수개선사업(96.05억원) △ 그린바이오소재 대량원료 공급센터 건립(98억원) 등에 대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요구했고, 환경부를 방문해 △ 바이오가스 활용 미꾸리 양식단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15억원) △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181억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683억원) △대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233억원)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 여건 등 타당성을 피력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는 월광포차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사진=남원시>

'월광포차 시즌2' 5회 앵콜 축제

남원형 야간 관광 콘텐츠 17일부터 주말 밤 '풍성'

남원시 관광협의회(위원장 박영태)는 제95회 춘향제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7일간, 광한루원 일대에서 진행된 '월광포차' 무대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월광포차'는 남원 고유의 야간 문화와 지역 예술을 결합한 복합 문화형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역 예술인 공연과 관광객 참여형 이벤트를 중심으로 구성돼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밤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60여 팀의 지역 예술인 및 단체가 참여해 지역 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95노래방'이라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95노래방'은 무대 참여 콘텐츠로, 누구나 자유롭게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뽐냈다. 참가비 1만 원은 전액 춘향장학재단에 기부될 예정으로, 축제의 즐거움과 지역 사회 나눔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주말 총 5회에 걸쳐 월광포차 시즌2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시즌에는 임창정, 정동하 등 대중가수들의 출연 확정으로 더욱 풍성한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연도 예정돼 남원만의 독창적이고 풍성한 공연 콘텐츠로 꾸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외상가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존'이 운영된다. 지역 대표 먹거리와 특색 있는 야식이 준비되어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맛을 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사격장 소음공해 주민 민원 해결 나서

서남용·김규성 의원, 비봉 방문 "관련기관 소통, 빠른 공사 진행"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현암마을 주민들이 인근 사격장 소음 공해에 시달리며 조속란 해결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암마을 주민들은 오랜 기간 사격장 소음 공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었으며, 일부 축사에서는 소의 불임 현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사격장을 관리하는 부대가 2025년 상반기까지 방음벽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완주군의회 서남용, 김규성 의원이 지난 12일 비봉면 백도리 현암마을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 의원들의 현암마을 방문은 인근 사격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마을 주민 10여 명과 완주군 관계자, 해당부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남용 의원은 "사격장 소음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주민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만큼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당 부대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기존계획보다 서둘러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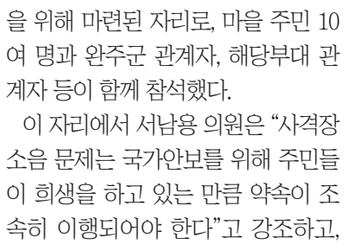
김규성 의원도 "부대에서 약속을 한 만큼 서둘러 이행 될 수 있도록 완주군 관계자들도 관심을 갖고, 해당사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추후 일정에 대해 더욱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부대는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2026년까지 시공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 전국대회서 저력 입증

제103회 동아일보기 전국대회 메달 다수 고른 활약 돋보여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경북 문경 국제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제103회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스포츠의 위상을 높였다.

남자부에서는 김병국 선수가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서범규·설윤수 조가 개인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남자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하며 팀의 저력을 입증했다.

여자부에서는 리코 선수가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리코·신유나 조가 개인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팀 전체가 고른 활약을 보였다.

특히, 올해 새롭게 팀에 합류한 서범규, 설윤수, 신유나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서범규와 설윤수는 남자 개인복식에서 안정된 호흡으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신유나 선수는 리코 선수와 짝을 이뤄 여자 개인복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서범규와 설윤수 선수는 순창제일고등학교 출신으로, 지역 인재 육성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순창군은 체계적인 체육 지원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과 우수 선수 발굴에 힘쓰고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영유아 첫 독서 돕는 '북스타트 책놀이' 진행

완주군이 생애 첫 독서를 위한 북스타트 책놀이 수업을 진행한다.

책과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가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2022~2023년 출생 영유아와 양육자로 오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중앙도서관 유아자료실에서 〈아니야? 아니야!〉 그림책 도서를 중심으로 동물 맞추기, 다른 동물 찾기, 동물 막대인형 만들기 등 오감이 발달할 수 있는 책놀이 활동을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에게는 그림책 2권, 북스타트 가방, 안내책자를 배부한다.

운영 일자는 5월 20일, 5월 27일, 6월 10일, 6월 24일, 7월 1일, 7월 15일로 매주 화요일마다 총 6회차로 진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어린이자료실에서 보호자 신분증, 등본, 아기수첩 등을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미원스페셜티케미칼 전주공장 완주군 이산모자원에 후원금

완주군에 소재한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전주공장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완주군에 소재한 이산모자원에 3,200여만 원을 후원했다.

13일 완주군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김홍석 전주공장장, 유진수 근로자 대표, 오화정 이산모자원장이 참석했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상반기 중 이산모자원 놀이터 신축, 생활실 장판 및 싱크대 교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전주공장은 석탄화학계 화학물질 제조업체로, 매년 이산모자원에 후원금 전달과 함께 삼겹살 나눔, 봉사활동 등 꾸준한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읍교회, 산불피해·저소득층 성금 1000만원 기탁

순창읍교회(목사 전성일)는 지난 12일 순창군을 방문해 산불피해 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한승연 장로는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주민들과 저소득층을 돕고자 순창읍교회에서 마음을 모아 피해복구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강대용 서진산업 대표, 남원시에 300만원 기탁 '명예의 전당' 올라

㈜서진산업 강대용 대표(보절면 출신)가 남원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과 춘향장학재단 장학금 200만원, 총 300만원 기탁해 '남원 愛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강대용 대표는 "저의 뿌리이자 성장 기반이 되어준 남원시에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젊은 인재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군치매안심센터-적십자봉사회 진안군協, 치매파트너 교육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13일 진안읍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적십자봉사회 진안군협의회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이수한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은 '치매안심이웃+'로서 앞으로 진안군이 운영하는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아로마 마사지, 발 마사지 등 치매환자 정서 지원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민수 진안군치매안심센터장은 "앞으로도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진안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행복한 가정의 달 '원더풀 장수 어르신 음악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연합회(회장 김주성)와 장수지회(지회장 서병선)가 지난 12일 장수군 노하숲에서 3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2025 원더풀 장수 어르신 음악회'를 열었다.

장수농악단의 흥겨운 풍물과 함께 시작된 이날 음악회에서는 윤인섭 님 등 4명으로 구성된 건강지킴이 자원봉사단이 장수군 어르신들의 복리증진과 이웃사랑 실천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으며, 전북에서 활동 중인 시카고밴드와 장수판타지아밴드, 장수통기타사랑 등 지역의 문화예술 동호회의 신나는 공연이 함께했다.

제53회 어버이날을 기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된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 노래자랑이 추진돼 흥과 끼가 넘치는 신명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참여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전점동(장계면)님은 오늘 하루 행복하고 잘 지냈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 잔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연합회는 회원들의 재능을 기부해 지역사회와 함께할 목적으로 2025년도에 설립된 민간단체로 시군별 지회를 두고 있으며 이번 '장수군의 원더풀 장수 어르신 음악회'를 시작으로 시군별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므로 더욱 활기 넘치고 생명력 있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문자마을 방송 지도 등 농번기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 주력

무주군이 시기별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관련 내용을 맞춤형 문자로 발송하거나 마을 방송,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

△3~4월에는 경운기 안전사고,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관해 홍보했으며 △5월과 6월에는 농약 중독(방수 장갑 및 방제복 착용 등 안전 조치)을 비롯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7~8월에는 온열질환(작업시간 조절 및 이동형 그늘막 마련)과 감전 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9~11월에는 농번기 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심혈관 질환 예방법을 공유하고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 예방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12~2월에 자주 발생하는 추락 및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대면 또는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농작업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는 '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보험료 자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황재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은 "풍년과 소득증대 모두 농업인 안전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의식 제고와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청년주택 모람' 입주 시작

18가구·26명 입주 귀농귀촌 희망 청년 안정적 정착 지원

청년주택 모람 내부

<사진=장수군>

장수군은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거주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형 귀농귀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청년주택 모람'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청년주택 모람'은 귀농귀촌 희망 청년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로 농촌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 2년간 제공되는 이 주거공간은 농업기초교육, 마을 공동체 체험,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자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다져갈 예정이다.

장수군은 지난 4월 입주자 신청시 18가구 모집에 39가구가 신청해 약 2: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선정 심사를 거쳐 18가구 26명을 최종 입주자로 선발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새 보금자리에 들어선 입주자는 "그동안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모람에 입주하게 돼 정말 든든하다"며 "이곳은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공간 같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청년주택 '모람'은 장수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청 사격팀 이시윤 선수, 전국 대회서 메달 획득

제8회 대구광역시장배 10m 공기권총 동메달 쾌거

임실군청 사격팀 소속 이시윤 선수가 지난 9일부터 열린'제8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10m 공기권총 종목 동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임실군>

임실군청 사격팀 소속 이시윤 선수가 지난 9일부터 열린'제8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10m 공기권총 종목 동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국 409개 팀, 2,881명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올해와 내년 각종 국제대회에 나설 연령별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이시윤 선수는 이번 대회 본선 경기에서 578점을 기록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결선에서 217.4점을 획득해 최종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첫 번째 전국 사격대회이다.

올해 총 7차례에 걸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 중 첫 대회로 개최됐다.

특히, 이시윤 선수는 2025년 사격 10m 공기권총 국가대표로 이미 선발된 바 있어, 이번 대회 결과를 통해 국가대표로서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시윤 선수의 값진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임실군은 스포츠 인재 육성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한누리수영장 안전요원, 심정지 환자 살려

유명호 요원 "해야할 일 했을 뿐" 신속정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장수군은 지난 3일 한누리전당 수영장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70대 여성 이용객을 수영장 안전요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가족과 함께 한누리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70대 여성 이용객이 수영장 샤워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 근무 중이던 유명호 안전요원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에 힘입어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안전요원은 즉시 119에 상황을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환자를 인계받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현재 환자는 병원에서 정밀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환자는 유 안전요원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 안전요원은 "안전요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사히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현장 안전요원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응급처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와 응급 대응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종민 임실군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인구유입 정책·정주여건 개선 제도적 뒷받침 최선"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장종민 의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문제 해결이 핵심"이라며 "임실군의회도 인구유입 정책과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사업 '눈길'

여름·겨울 학기 총 70명 지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 방학을 이용한 지역 내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 집중한다. 재단에 따르면 인재육성사관학교(기숙학원 입소 지원)를 운영하며 올해는 여름과 겨울학기 총 7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역 내 중학교 2학년(겨울학기)~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여름학기) 학생으로,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국내 기숙학원비의 80%, 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한다.

오는 16일까지 모집하는 여름학기 대상자는 총 22명(중학생 3학년 6명, 고등학생 1~3학년 16명)이다. 신청 자격은 기준일부터 보호자 중 1인과 함께 무주군에 주소가 돼 있고 직전 학기 석차가 70% 이내여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16일까지 인재육성사관학교 참가 신청서와 성적확인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소 확인 서류 각 1부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오는 23일 합격자를 선정(학교 및 개별 통보)하며 인재육성사관학교(기숙학원 입소)는 오는 7월과 8월 중 진행된다.

황인홍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장(무주군수)은 "재단이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성취 의욕을 높이고 있다"라며 "인재육성사관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임실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소아·청소년(0세~18세)과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응급환자가 타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1건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지역 간 응급의료기관 불균형이 큰 만큼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이 임실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돼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자치입법 역량 강화 교육

행안부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진안군은 13일 군청 강당에서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등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소속 사무관 2명이 직접 진안군을 찾아 강사로 나서며, 자치법규의 제·개정 절차, 입법기술, 최신 법령 해석 사례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공사) 분야, 농업·산림 분야 등 법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팀장들이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 유치를 희망해 이번 프로그램을 성사시켰다.

이날 교육은 '자치입법 트렌드와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주제로, 서정욱 사무관과 진상은 사무관이 강의를 맡아 자치법규 입안의 핵심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사례별 법제교육 내용을 직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입법역량 및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경찰서, 안전띠 매기 일상화 캠페인

진안경찰서(서장 홍장득)는 지난 13일 진안초등학교 앞에서 지자체, 교직원, 경찰협력단체(모범 및 녹색)와 함께 안전띠 매기 일상화를 위한 '타면 '착' 안전도 '착"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띠는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차는 것이 필수지만 여전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안전에 등한시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진안경찰서는 사고다발지점, 스쿨존 및 주요 읍·면 진출입로 중심으로 홍보 및 단속 플래카드 게첨 후 연중 집중 단속 및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일제 캠페인으로 1990년대 초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바 있으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의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시점에서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장득 진안경찰서장은 "안전띠 매기 생활화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영탁앤블루스(전북내탁), 영탁 생일 기념 성금·현물 기탁

가수 영탁의 공식 팬클럽인 '영탁앤블루스(전북내탁)'는 13일 자신들이 응원하는 가수 영탁의 생일을 기념해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200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했다.

김선아 영탁앤블루스 전북회장은 "좋아하는 가수 영탁의 생일을 맞아 평소 기부에 앞장서는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면서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지역 내 봉사 및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는 선한 팬모임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근 기자

익산시청 육상팀, 국내외 메달 휩쓸며 명성 입증

금은동 총 6개 메달 수확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이 국내외 대회에서 빛나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육상팀은 최근 열린 국내외 대회에서 금·은·동 총 6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이달 열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거머쥐는 성과를 거뒀다. '홍콩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1개를 획득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이달 2일까지 열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해머던지기 김태희 선수는 뛰어난 기량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같은 종목의 장영민 선수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창던지기 김민지 선수도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달 열린 '싱가포르오픈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포환던지기 이성빈 선수와 창던지기 김민지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며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웅포면, 주민이 그린 벽화 마을에 생기 더하다

익산시 웅포면이 벽화 그리기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웅포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 등 지역 10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벽화 그리기는 웅포 오토캠핑장 입구에 위치한 건물 벽면 36m 구간에 걸쳐 조성됐다. 허름하게 방치돼 있던 벽은 주민들의 재능과 정성이 모여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 중장년 봉사단, 고창·무주에서 따뜻한 나눔 활동

취약계층 가구 보수활동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시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중장년층(40세~59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장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에서는 중장년 봉사단 15명이 참여하여 '생활밀착형 우리家 하는 환경개선'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봉사단은 지역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노후되거나 고장난 전기 시설과 전등을 안전하게 교체하며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무주군에서는 참사랑 삼육봉사회 소속 중장년 봉사단 20명이 '도배장판 보수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낡은 도배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김영태 기자

김제벽제라이온스클럽, 여름 이불 30채 기부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13일 국제라이온스 356-C 지구 김제벽제라이온스클럽(회장 방관철)이 여름 이불 30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벽제라이온스클럽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봉사단체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김제시 대표 명문 봉사클럽이며, 이번 기부는 곧 다가올 무더위를 대비해 우리 이웃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추진됐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 수지면, 수지초 강당서 250명 초청 경로잔치 성황

남원시 수지면 발전협의회(회장 박환경)는 지난 10일, 수지초등학교 강당에서 어르신 250여 명을 모시고 '2025년 어르신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식사 제공과 더불어,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라인 댄스, 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 대박수산, 1천만 원 상당 새우 500kg 기탁

새우 양식업체 대박수산(공동대표 박소영·박성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에 1천만 원 상당의 새우 500kg을 기탁했다.

군산시 신관동에 있는 대박수산은 왕새우를 직접 양식하여 판매·제공하는 수산업체이다.

특히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맛있는 새우구이, 새우볶음밥을 판매하고 있어 지역 맛집으로도 인기가 있다.

또한 대박수산은 지난 2월에 착한가게로 등록해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전달식에 참석한 대박수산 박소영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힘든 시기에 이웃분들이 몸에 좋은 새우를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기탁 이유를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대병원, 소통·공감 메신저 '홍보미' 출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사내 홍보단 '홍보미'가 공식 출범됐다. 홍보미는 앞으로 병원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하는 메신저 역활을 하게된다.

전북대병원 사원들로 구성된 '홍보미'는 여러 부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됐다.

이들은 병원 주요 뉴스 및 진료·연구 성과, 건강 관련 의료 정보 등을 내부 직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홍보미들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홍보단원들은 병원 내외의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 의료서비스 현장 등을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해, 생생한 병원 소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병원의 비전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내부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익산시 영등2동 부녀회, 독거노인에 사랑의 반찬 나눔

익산시 영등2동 부녀회(회장 홍점순)는 13일 '사랑실은 이웃나눔, 따스한 우리동네' 활동으로 독거노인 10가정에 밑반찬을 전달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정성껏 만든 반찬을 전하고 안부를 살폈다.

홍점순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부녀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신입생 제복 착복·승급식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경찰행정학과가 13일 신입생 제복 착복 및 승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노준 총장을 비롯해 학과 교수진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제복 착복을 축하하고, 2학년으로 승급한 재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연 학생 외 31명의 신입생은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학문과 실천을 겸비한 경찰행정 전문가로 성장해 사회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최성민 기자

〈一事一言〉

희대의 더블 쿠데타, 사회적 항암 치료의 기회!(1)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12.3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내란'이 교묘히, 급속히, 그리고 뻔뻔스럽게 자행되었다. 일찍이 18세기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1748)에서 '법의 타락'을 말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의 2025년처럼 법이 타락한 모습은 유별나다.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2018년에 노회찬 의원이 타락한 한국 사법의 희생양이 되었다. 잊어선 안 될 사법 살인! 당시 많은 시민들은 '이것이 대한민국인가?'라는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나 기득권에 중독된 판검사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또다시 사법 살인하려 했다. 노회찬 의원의 촌철살인처럼 과연 한국의 법은 "만인(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딱 만 명(기득권층) 정도에게만 평등하다"고 생각한 건가?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Legatum)이 발표한 '2023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군(132위), 정치인(114위), 정부(111위), 기관(100위) 순으로 신뢰도가 달랐다. 특히,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인이나 기관들의 신뢰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최하위층인 155위였다. 2013년 146위였는데, 10년 뒤 155위로 더 하락했다.

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23년 10월에 공개한 '2023 한눈에 보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보자. 이에 따르면, '법원과 사법시스템'을 신뢰한다는 한국인은 49.1%로 OECD 평균 56.9%에 훨씬 못 미쳤다. 조사 대상 20개국 중 한국은 꼴찌 그룹인 15위였다. 사법시스템 신뢰도는 노르웨이가 80.9%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는 78.1%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룩셈부르크(72.3%), 네덜란드(69.0%), 영국(68.1%), 아일랜드(68.1%), 뉴질랜드(64.8%), 에스토니아(64.6%), 오스트리아(60.0%) 등이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그리고 스웨덴(56.7%), 캐나다(55.7%), 호주(52.6%) 등이 50% 이상이었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들은 일본, 라트비아, 포르투갈, 프랑스, 콜롬비아였다. 프랑스가 한국보다 낮다니, 약 300년 전 몽테스키외가 '법의 타락'을 우려했던 심정이 읽힌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사법 신뢰도 수준이 결코 '선진국'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것! 그간 한국의 교육 및 학력 수준이나 경제력 및 군사력 수준은 가히 선진국이 부럽지 않다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집단의 정치력이나 전반적 사법 수준은 그에 걸맞지 않게 참담한 수준이다. 이러한 괴리는 결국 한국인의 참담한 행복도로 연결된다.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WHR)에서 한국은 58위로, 1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이었다. 이는 전년도 순위에서 6계단 하락한 것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이게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러나 기득권층, 특히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과 경제를 이끄는 엘리트들에게 한국 사회는 '거의 천국'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김앤장'으로 상징되는 짱짱한 변호사들(특히 고위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을 천문학적인 돈으로 사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큰 죄도 작은 죄로 종결된다. 거꾸로, 제거 대상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없던 죄도 새로 생기고, 별 것 아닌 범죄도 큰 범죄로 취급된다. 이렇게 기득권층은 돈과 권력, 연줄로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강고히 옹호, 확장한다. 이것이 사태의 진실이다. 최근 대표적인 예를 몇 개만 보자.

첫째, 지귀연 판사가 2025년 3월 8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 시켰다. 12·3 내란의 밤 이후 수백, 수천 만 민주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분노하고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쳤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이 어쩔 수 없이 내란 수괴를 구속했다. 바로 그 수괴를 법원이 '탈옥'하게 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2025년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으나, 지귀연 판사 덕에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흥미롭게도 지 판사는 '구속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석방 결정을 했는데, 지 판사 자신이 참여한 법률해설서에는 구속기간 산정 시에는 '날(日)'을 단위로 한다고 했으면서도 윤석열의 경우엔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스스로 부정, 실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

둘째, 이 사상초유의 판결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해야 했다. 형사소송법 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다. 이 즉시항고를 대검찰청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포기했다.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 곧이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냈다.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그런데 정확히 10년 전, 검찰은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없애면 안 된다며, 즉시항고를 주창했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6·3 대선 레이스에 본격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통합'과 '쇄신'을 외치고 있으나 그의 정치적 행보와 주변 인선은 그 모든 외침이 허울뿐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국민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변화하겠다"며 환골탈태를 다짐한 직후, 김 후보가 내세운 인사 라인업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탄핵 반대와 계엄 옹호로 대표되는 친윤 내란 잔당들과 나란히 선 김 후보의 모습에서 국민이 어떤 쇄신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정권하의 불법계엄 검토와 탄핵 회피 시도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반헌법적 작태였다. 김용태 내정자의 사과는 당연했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과거의 행태를 주도하거나 동조했던 인물들로부터 당을 분명히 선 긋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탄핵 반대, 계엄 옹호 세력을 대거 선거대책본부에 기용하며 오히려 '내란 세력'과 손을 맞잡는 형국이다. 이는 도저히 통합이라 부를 수 없는 퇴행적 봉합이며,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뒷거래일 뿐이다.

김 후보는 "상처를 보듬고 화합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지만 그 '화합'이란 명분 아래 책임 추궁을 회피하고 과오의 청산 없이 겉으로만 단결을 연출하려 한다면 이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국민은 그런 위선적 쇼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을 끌어안는 것이 화합일 수는 없다. 김 후보가 후보 교체를 시도한 이들과 나란히 대선에 나선다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 더 나아가 헌법 질서를 지킨 국민 전체에 대한 배신 행위다.

국힘 내부에서도 '묻지마 통합' '얼굴마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다. 이는 김 후보와 당 지도부가 쇄신의 진정한 의미를 외면한 채, 기득권과 타협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겉으론 사과와 반성을 말하지만 실상은 같은 세력이 다시 권력을 나눠 갖는 구태의 반복이다. 김 후보는 과거 윤석열 치하에서 벌어진 내란 시도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하며 그 책임자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으로 쇄신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정당의 환골탈태란 단순한 인사 개편이나 말 잔치로 끝내는 게 아니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 규명,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 당을 이끌 때 가능한 일이다. 김문수 후보가 진심으로 국민의힘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의 위선과 봉합 정치는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6·3 대선은 국힘의 재도약이 아닌, 민심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참패의 무대가 될 것이다.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계엄령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암흑의 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끝내 막아낸 자신들의 투쟁을. 그런 국민 앞에서 김문수 후보가 벌이고 있는 이 '순간 모면용 연극'은 오히려 분노만 부를 뿐이다. 통합을 가장한 봉합, 쇄신을 위장한 퇴행. 국민은 이미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 위선에 기대어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다.

▲오늘의 시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 나희덕

사랑에도 속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솔잎혹파리가
숲을 휩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 순간인 듯 한 계절인 듯
마음이 병들고도
남는 게 있다면
먹힌 마음을 스스로
달고 서 있어야 할
길고 긴 시간일 것입니다

수시로 병들지 않는다 하던
靑靑의 숲마저
예민해진 잎살을
마디마디 세우고
스치이는 바람결에도
빛 그림자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단풍이 든 것만 같아
그 미친 빛마저 곱습니다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연무대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화재열전

매월당 부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블교, 팁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 107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정재근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익산과 이리, 하나 된 그날로부터 30년

시민과 함께 써 내려간 익산시 성장 기록

익산 신청사

익산 백제 국가유산 야행

모인공원

삼한시대부터 뿌리를 함께해 온 익산과 이리가 하나가 된 지 어느덧 30년이 됐다. 1995년 5월 10일, 익산군과 이리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하나로 통합돼 익산시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했다. 그 결단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농촌의 넉넉함과 도시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농복합도시로 익산을 성장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익산시는 지난 9일 통합 30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더 큰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정주 여건 개선, 산업 육성, 문화와 관광 활성화, 인구 증가 전환 등 도시 전 분야에서 거둔 변화와 성장을 한눈에 정리했다.

정주여건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머무는 도시 실현
농생명·바이오·관광까지…더 나은 내일 향한 걸음 본격화

◆ 도농이 상생하며 완성한 익산형 성장모델

통합 이후 익산은 도시와 농촌의 강점을 조화롭게 살리며 상생 발전을 이뤄왔다.

도심은 신규 아파트 공급, 주거 지원 확대, 도서관·공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고, 농촌은 농업을 넘어 식품·바이오 산업과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며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1995년 3,161억 원이었던 시 예산 규모는 올해 1조 8,108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주택수와 사업체 수 또한 각각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익산시는 눈에 띄는 외형적 성장을 기록했다.

산업단지 면적은 514만㎡에서 1,133만㎡로 2배 넘게 확대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혔다. KTX 익산역의 철도 이용객도 1995년 433만 명에서 2024년 68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해 교통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도 강화됐다.

◆ 미래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농촌의 성장

옛 익산군이었던 농촌 지역은 식품·바이오 산업과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적 변화를 이뤄냈다.

우선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28개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식품 산업의 세계 진출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식품진흥원을 비롯한 14개 지원 시설과 올해 본격화하는 2단계 조성 사업을 통해 식품·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로의 도약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시는 과거 익산군청사가 있던 함열읍에 북부청사를 조성하고, 농업 전담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북부청사는 농민들이 편리하게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함열읍에는 올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도 새롭게 들어선다. 이 캠퍼스는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며 농생명과 바이오 분야의 지역 혁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광 분야도 백제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관광객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도 4월 기준 130만 명 이상이 이미 익산을 찾았다. 올해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 정주여건 혁신으로 청년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

옛 이리시 지역은 정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며 도시 품격을 높였다. 어양동 예술의전당과 권역별 스포츠센터, 숲·금마·유천도서관 등은 시민들의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공급과 민간특례공원 조성, 여가시설 확대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면서 인구 유입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정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은 도시 곳곳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실제 30년 동안 이어진 인구 감소세가 멈췄고, 최근에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됐다. 최근 두 달 사이 증가한 인구의 73.1%가 청년층일 정도로 익산은 청년 친화 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 경제 활력과 일자리로 미래를 여는 익산

익산시는 청년과 가족이 머무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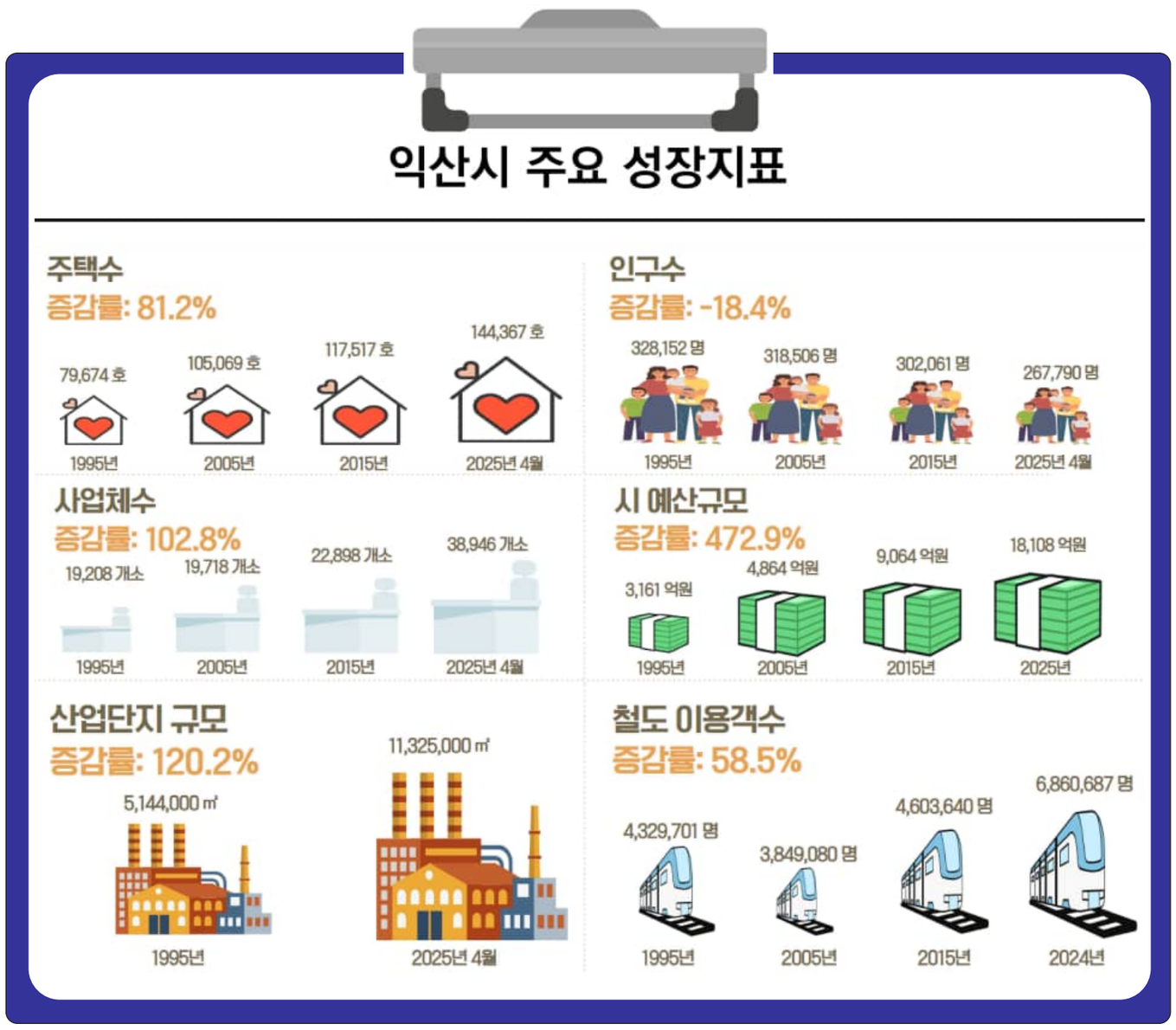
2020년 출시된 익산의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은 첫 해 발행액 1,828억 원을 기록한 후 2024년 10월에는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돌파하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농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된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은 2020년 549농가에서 올해 1,197농가로 참여 농가가 약 118% 증가했고, 지난 4월 말 기준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지원, 배송비 보조, 라이브 커머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농, 고령농, 영세농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보를 위한 혁신적 유통 모델로서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과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인 치킨로드 등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며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경제·도시재생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산업구조 고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꿈꾸고 머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지난 30년간 익산의 눈부신 변화와 성장은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이제는 통합의 시대를 넘어 사람이 모이고 청년이 머무는 품격 높은 익산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 4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지금, 앞으로도 농생명·바이오·문화·관광 산업을 고도화하고 정주 인프라를 확충해 더 나은 익산, 더 행복한 시민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최준호 기자